미항 '목포~ 로맨틱 1987'로 떠나자

한국관광공사 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선정

보리마당·연희네슈퍼·시화골목 등 이벤트 진행

목포가 봄나들이객을 기다린다.

오는 28일부터 5월13일까지 3주간은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이라는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봄 여행주간이다.

목포시는 봄 여행주간 로맨틱 시네마 남도여행지 대표 프로그램 공모에 '목포~ 로맨틱 1987'가 선정돼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는 오는 28일, 5월 5·12일 오후 2-4시 아름다운 항구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봄~ 로맨틱 1987 버스킹'과 프로포즈 이벤트를 펼친다.

또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슈퍼에서 포토존을 운영하고, 영화속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체험 인생사진 찍기 SNS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연희네슈퍼 인근의 시화골목에는 '사랑의 우체통'을 마련했다. 크고 작은 배가 오가는 항구와 은빛 물결이 넘실대는 다도해를 바라보며 연인과 가족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후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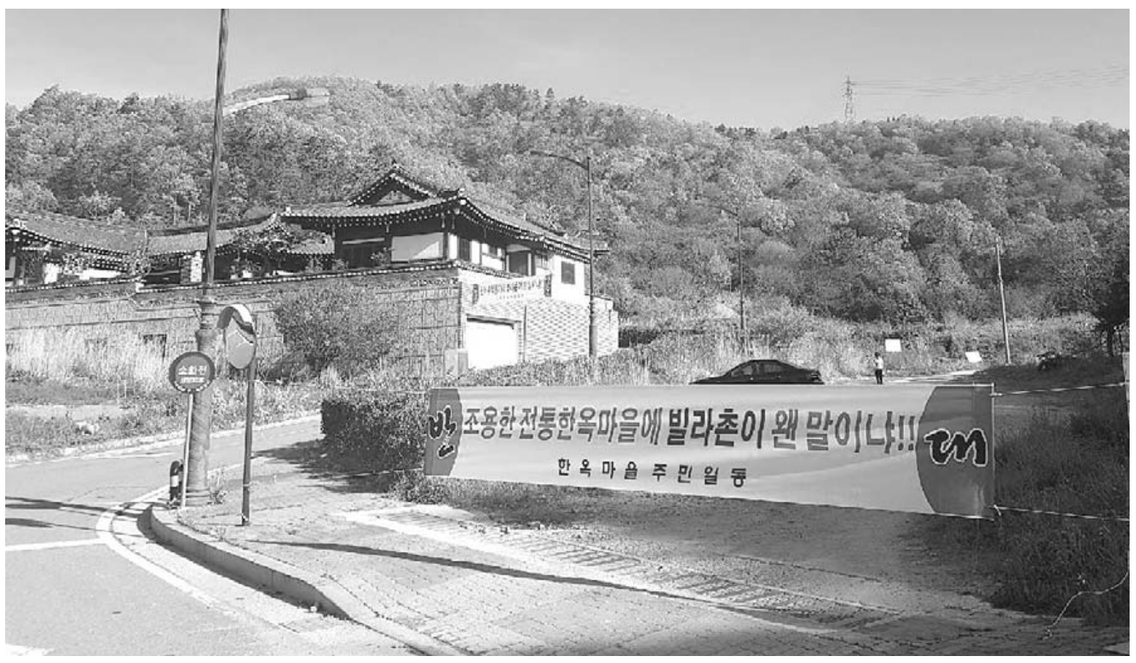
어부의 애환을 그린 시화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햇볕이 잘 드는 따스한 마을의 비탈진 골목길에서 찻집 '다순구미 다방'을 만날 수 있다. 목포 앞바다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에서 살랑살랑 부른 봄바람을 맞으며 '할머니 바리스타'가 내놓는 커피와 차, 못난이빵을 먹으면 관광객은 여유와 쉼이라는 여행의 백미를 맛볼 수 있다.

목포는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답게 새콤달콤 준치회, 싱싱한 낙지초무침, 부드러운 꽃게살 비빔밥 등으로 봄나들이객에게 먹는 재미도 선사한다.

시는 다음달 5-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발한 전국 대학생 SNS 홍보단 트래블리더 23명을 초청해 이와 같은 목포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색다른 추억을 남기면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라는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올해 봄 여행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 제공

봄 여행주간 로맨틱 시네마 남도여행지 대표 프로그램 공모에 '목포~ 로맨틱 1987'가 선정돼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영화 '1987' 촬영지인 연희네슈퍼에는 포토존이 설치된다. /목포시 제공



무안 남악지구 오룡산 입구의 한옥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대규모 빌라촌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규탄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용한 무안 한옥마을 주민들 뿔났다

남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특혜 의혹 제기

조용하기만 한 무안 남악지구 오룡산 입구의 한옥마을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무분별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것.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해 이른바 '힐링'이라는 명분으로 조성된 전통한옥 마을 옆에 대규모 빌라촌이 들어서게 되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22일 무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에는 단독주택 18세대 미만으로 설계됐던 관리계획이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과 상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이 제기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옥마을 주민들의 주거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 수려한 경관 마저 일부분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룡산 입구 산책로 등이 사라지고 자연생태계 파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부지 매각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애초에 정확하게 명시돼야 하며 개발을 해야 한다면 체육공원이나 본래의 계획대로 개별 단독주택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암투병 생활을 하기 위해 요양차원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오룡산 한옥마을 단지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울분을 토하면서 "앞으로의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원칙과 법대로 승인을 요청해 어쩔 수 없다"며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악지구 오룡산 입구의 한옥마을이 신음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뒷짐만 지는 모습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나주 혁신도시 유전제공원 '에너지 파크' 새 단장

숲 연령층 대상 친환경 체험놀이 공간 조성 추진

나주시가 관내 공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유전제공원(빛가람동 22-1)에 '에너지 체험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인, '유전제공원 에너지파크' 조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0억원(국비60%, 시비40%)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들의 과학교육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가 발전식 모노레일, 회전 놀이대, 시소 등 놀이·체험 시설을 비롯해, 중·장년층을 배려한 태양광 벤치, 파고라 등 산책·휴식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휴게 목적의 광장으로 조성된 유전제 공원 기존 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조경·휴양·기반·녹지 등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체험·문화시설을 접목시켜,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테마가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재윤 시장 권한대행은 "에너지파크를 유아에서 노년층까지 누구나 찾고 싶은 놀이 및 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기존 공원 활성화와 빛가람 에너지 밸리에 부합하는 테마 공원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장흥 찾은 인천 기업인 투자인프라 관심

인천 남동구 기업인 20명이 장흥군을 찾아 투자환경을 둘러봤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경영인연합회원 20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인 초청행사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등 주요 투자후보지와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팸투어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장흥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편백숲 우드랜드, 통합의료한방병원, 토요시장 등 이와 연계된 지역 인프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은 올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50% 달성을 군정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투자유치 목표는 60개 기업, 600억원으로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1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군은 올해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를 비교우위 자원 활용 식품업체로 방향 전환하고, 타깃기업으로 선정된 50여개의 업체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여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흥은 전남 중남부권 지리와 교통의 중심지로 아직 저평가 된 부분이 있다"면서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행정적 지원을 최대화해 투자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고병곤 기자

화순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상 수상

화순군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대회는 전남도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6개 시·군 사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군은 지난 2016년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식품원료로서 유통이 제한된 작두콩 꼬투리(껍질)를 식품원료로 등재하기 위해 농가와 군, 농촌진흥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 꼬투리의 제한적 사용(미숙꼬투리)을 인정·고시한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미숙꼬투리를 식품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국 작두콩 재배농가의 영농이 안정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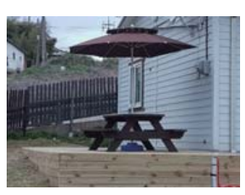
영광 전원 주택 (매매)

전원주택 (영광읍) 광주에서 30분!!

▣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 텃밭(10평)
▣ 마당전체 잔디 (고급파라솔 설치)
▣ 토지 151평 건물 42평
▣ (32평 아 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3천◈

매매가 9천 7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2분◆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13억5천 ◈
(융 3억5천가능)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 매가 8억3천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 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 (최고급주택)월세 550만
▶ 매가 9억5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 감정가 45억3천 → 최저가45억3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4)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9억 → 최저가13억8천
4)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3억6천
5)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정가 3억3천 → 최저가 3억3천
6)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7) 서구 금호동 (7층중7층상가)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8) 북구용봉동 (12층중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9) 남구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0)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3,302평 건 3,955평
감정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① 서구 풍암동 주은모아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③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6천2백 → 최저가 1억1천
④ 광산구 신촌동 신가부영(25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⑤ 동구 운림동 라인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9천 → 최저가 1억3천

주택

⑥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17평
감정가 9천만 → 최저가 6천3백
⑦ 광산구 월계동 (2층 주택)
토지 68평 건물 75평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⑨ 북구 운암동 (토37평,건26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토지·기타

⑩ 광산구 월전동 1,999평 건2490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
⑪ 광산구 월전동 (공장)토 2220평 건 1256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4억
⑫ 서구 풍암동 (농지) 1,30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가 4억8천
⑬ 광산구 박호동 (임야) 13,199평
감정가 1억9천→ 최저가 4천4백
⑭ 서구 풍암동 (농지) 1,300평
감정가 6억9천 → 최저가 4억8천

010-6670-9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실전-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 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 매매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구함 ※
①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②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